

“산업보건과 노동운동, 함께 성장하며 ——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132주년 세계 노동절에 저 자신과 우리 협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산업보건의 역사입니다. 노동운동의 발전과 함께 산업보건의 영역은 넓어지고,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든든한 노동운동 없이는 산업보건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됐습니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운동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자 노동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가 산업보건과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보건 전문역량 강화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보건 서비스는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협회가 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4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랑의 나눔상자’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4월 28일에는 윤리경영과 ESG경영의 일환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서약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와 행복을 나누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협회 구성원의 권익향상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평생 노동자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일할 맛 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주위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협회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가 산업보건과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